

광주상생카드 1년...이용액 5380억 돌파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화폐 발급 건수 150만건 넘어 23%가 동네마트·식당서 사용

광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선보인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가 출시 1년을 맞아 발급 건수 150만건을 돌파했다.

기존 할인 혜택(5%)을 대폭 늘린 10% 특별할인은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12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에 따르면 광주상생카드 발급 건수는 체크카드 8만4827건, 선불카드 144만6096건 등 총 153만923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상생카드 형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0일 기준 90.85% 소진됐다.

광주상생카드로 지역상권에서 이용한 금액은 5380억원이 넘는다. 체크카드 이용액은 1286억2800만원, 선불카드 구매액은 4095억9500만원에 달한다.

업종별 이용액을 보면 동네마트(679억 2600만원)와 식당(559억5100만원)에서 쓴 금액이 전체의 5분의 1(23%)을 차지한다.

광주상생카드는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에 따라 지역에 사업자를 둔 9만여 개 가맹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도 50만원 내에서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송종욱(맨 왼쪽) 행장이 '광주상생카드 1주년 기념 경품 이벤트' 1~2등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체크카드로 한 달에 50만원을 쓰면 은행 통장에 5만원이 적립되는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10만·20만·50만원권)는 현금 45만원을 내면 50만원짜리 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상생카드는 만 14세 이상 광주시민이라면 은행 창구에서 주민등록증(학생은 학생증) 등을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유통

업소, 대중교통에선 사용할 수 없다.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상생카드 출시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열고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경품 증정식을 열었다.

경품 행사는 지난 3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광주상생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이용고객은 약 9만여 명, 이용총액은 1437억원에 달했다.

광주은행은 이 기간 동안 이용고객 9만여 명 가운데 115명을 추첨했다.

1등 1명에게는 광주상생카드 100만원, 2등 4명에게는 광주상생카드 50만원, 3등 10명에게는 광주상생카드 20만원, 4등 100명에게는 광주상생카드 10만원 등 총 1500만원 상당의 광주상생 선불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송 행장은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광주상생카드가 지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 모두 지역명을 넣어 '○○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이달 초 처음으로 체크카드 형식 지역화폐를 선보였다.

전남지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는 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과 목포시가 협업해 내놓은 '목포사랑카드'는 10일 만에 1227건(체크카드) 발급됐고 6200만원 상당이 동네상권에서 쓰였다. 이 카드는 매월 50만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6% 상당을 돌려 받는 '캐시백' (7월은 10%) 혜택이 있으며, 광주은행은 9월까지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추첨해 경품을 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하나은행-공제회 협약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확대된다.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을 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소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공제회와 협약에 따라 기존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공제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대출금리는 지난 9월 기준 최저 2.456% 등 2%대이다. 대출 한도는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해 설정한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ICT 모의 분쟁조정 대회' 참여 대학생·대학원생 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0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 참여할 대학생·대학원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

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모집 분야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등 4개이다.

1차 예선(서면)과 2차 본선(현장경연)을 치러 우수 4개팀에 총 11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준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하계휴가비 지급 기업 줄고 휴가 사용 장려 기업 늘어

경총, 793개 기업 조사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줄고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기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79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계휴가 실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48.4%가 휴가비를 줄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54.5%)에 비해 6.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56.7%, 300인 미만 기업이 46.6%로 지난해보다 각각 3.9%포인트, 6.6%포인트 감소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감소폭이 더 컸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해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한다는 기업은 지난해(52.7%)보다 10%포인트 늘어난 62.7%였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300인 이상은 64.4%로 지난해(57.5%)보다 6.9%포인트 늘었고, 300인 미만은 62.3%로 10.7%포인트 높여졌다.

시행 이유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9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9	14	17	18	42	44	3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305,150,450				5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64,064,739				56
3	3개 숫자일치	1,411,896				2,541
4	4개 숫자일치	50,000				122,864
5	3개 숫자일치	5,000				2,052,965

무풍에어컨 여름 특별행사 삼성전자, 20일까지

삼성전자는 오는 20일까지 열흘 동안 '무풍에어컨 여름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무풍에어컨 갤러리·클래식 제품 중 행사 대상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7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으뜸효율 가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대상 제품은 개인별 30만원 한도에서 구매 비용의 10%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냉방 면적이 56.2㎡(17평형)인 무풍에어컨 클래식 모델을 에너지효율 3등급으로 새롭게 출시해 으뜸효율 대상 에어컨 라인업을 확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무풍에어컨은 직바람 없이 쾌적한 무풍냉방뿐만 아니라 하루 최대 110ℓ 까지 대용량 강력 제습이 가능해 장마철에도 활용도가 높다"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가 장마 이후 찾아올 무더위를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무풍에어컨 여름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제공>

꽃詩로 엮은 꽃으로 오는 소리

조선의 낭송 시집

"조선의 시인은 꽃을 통해 자신의 시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꽃이 던지는 언어를 깊이 공감하고 상상력과 결부하여 형상화한다. 문학이 응당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당연한 자연이다. 그런 사실적 진실을 벗어나지 않은 진정성이 시적 상상력으로 진전한 것이다. 금번 여섯 번째 시집으로 엮어낸 시인들의 문학적 함의와 정서에 대한 호기심은 가독성을 사유토록 야기한다. 그 시편들 속에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진정하게 이뤄내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한 탐색과 모색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철영 시인·문학평론가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거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꽃으로 오는 소리」